



탄소 및 탄소배출권 펀드의 현황과 전망

서 철 수 | 한국투자신탁운용 SOC운용본부 본부장 상무

서 론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는 두 종류의 탄소펀드에 대해 900억 원 규모로 투자자 약정을 끝내고 운용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 탄소펀드는 다가올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열리는 탄소경제와 관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그 산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 설정이 추진되었으며 한국투자신탁운용 컨소시엄이 지난 해 4월 펀드의 운용과 투자자 모집을 맡을 주간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투자자 모집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기관과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 2개월간 투자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투자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오는 3월 첫 투자집행을 준비 중에 있다.

당사가 운용 중인 탄소펀드는 각각 온실가스 저감사업(CDM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탄소펀드와 이러한 저감사업을 통해 획득한 온실가스 배출권(CERs)에 투자하는 탄소 배출권펀드로 구분되며, 기관투자를 중심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대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Blind 방식으로 설계

되었다.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실적을 UN으로부터 승인 받아 획득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CERs)의 매각을 통한 수익과 프로젝트의 자체적인 운영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추구가 동시에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이러한 탄소펀드의 투자로부터 획득한 탄소 배출권을 매집하여 펀드 투자자의 자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권 형태로 바로 배당하거나 이를 다시 매각하여 그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시중의 일반적인 뮤추얼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이나 파생상품과는 달리 지금까지 없었던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고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펀드 설정시점에는 일반인의 인식부족과 새로운 투자 대상이라는 점이 주는 막연함에서 오는 우려 등의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당사 탄소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온실가스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중인 전략적 투자자와 향후 이러한 규제 하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탄소경제의 기회를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재무적 투자자들로 총 9개의 기관 투자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투자자 중 에너지관리공단은 당사가 운영중인 탄소펀드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당사와 공동으로 다양한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에 관한 자문을 통해 당사 탄소펀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본 론

탄소펀드의 투자 대상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어떠한 형태의 프로젝트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러한 대상 프로젝트의 범위는 지금까지 투자를 검토했거나 투자집행을 준비중인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예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반도체나 LCD의 제조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프로젝트,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던 화석연료를 기존에는 버려지던 우드칩(Wood Chip: 나무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적절히 타 첨가물과 혼합된 연료 형태의 나무 부산물)이나 축산분뇨 혹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으로 대체하여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프로젝트, 온실가스 발생량이 거의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에 투자하여 궁극적으로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 등이 있다.

대상 프로젝트가 속한 국가 역시 제한은 없으나

당사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으로서의 실적인정을 위해 교토의정서 상에 규정된 Annex I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선 감축 의무를 부여 받은 40개 국가)를 제외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컨설팅 업체들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양질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와 기대 수익률에 있어 별도의 지침을 두고 있어,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이 높고 수익률 역시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투자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투자규모는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당사가 정한 프로젝트별 목표 수익률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의 탄소펀드는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지만, 탄소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의 특성상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대상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발굴 및 기술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사업으로서의 타당성 평가에 이르는 영역에 대해 국내에서 동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한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프로젝트 별로 국내외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기관들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거친 후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넓은 투자 범위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

보하고 있다.

탄소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투자구조는 지분투자와 확정이율의 대출을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지분투자와 확정이자 대출이라는 두 가지 투자방식을 투자설계時 함께 반영함으로써 추가수익 창출가능성 확보와 과도한 지분투자로 인한 사업 리스크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구조를 통해 당사는 주주이자 대출자의 입장에서 직접 투자대상 프로젝트를 관리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 펀드의 경우 이렇게 탄소펀드가 투자한 프로젝트들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을 매집하거나 기타 다양한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만을 매집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바로 배당하거나 잉여 배출권의 매각을 통해 그 수익을 배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탄소펀드의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우선매수 권리를 프로젝트 투자시점부터 계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을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이 기 확보하였거나 당사의 탄소펀드가 투자하지는 않았으나 적절한 가격으로 매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탄소 배출권을 선점하기 위해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중개기관과

사전 협의 중에 있다.

결 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 예정인 탄소 및 탄소 배출권 펀드는 온실가스 저감사업 투자와 이를 통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 확보를 투자 목적으로 갖는 한국 최초의 펀드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의해 파생될 새로운 시장과 그 당사자들은 당사가 운용 계획 중인 탄소펀드를 시발점으로 관련 산업과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 가는 과정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해 보다 뚜렷한 인식을 가져나갈 것이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어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 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시장과 산업의 특성을 앞서 파악하고 최고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육성함으로써 현재 운용중인 1호 펀드에 이어 2호, 3호 펀드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등 향후 새로운 기회가 될 탄소경제 시장을 주도적으로 열어나갈 계획이다.

본 기사는 펀드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이미 설정되고 자금모집이 완료된 탄소 및 탄소배출권 펀드에 대한 현황, 전망에 대한 일반적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작성된 기사로 본 기사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지 않으며, 본 기사에 소개된 계획은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탄소 및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설정될 수 있는 펀드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펀드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